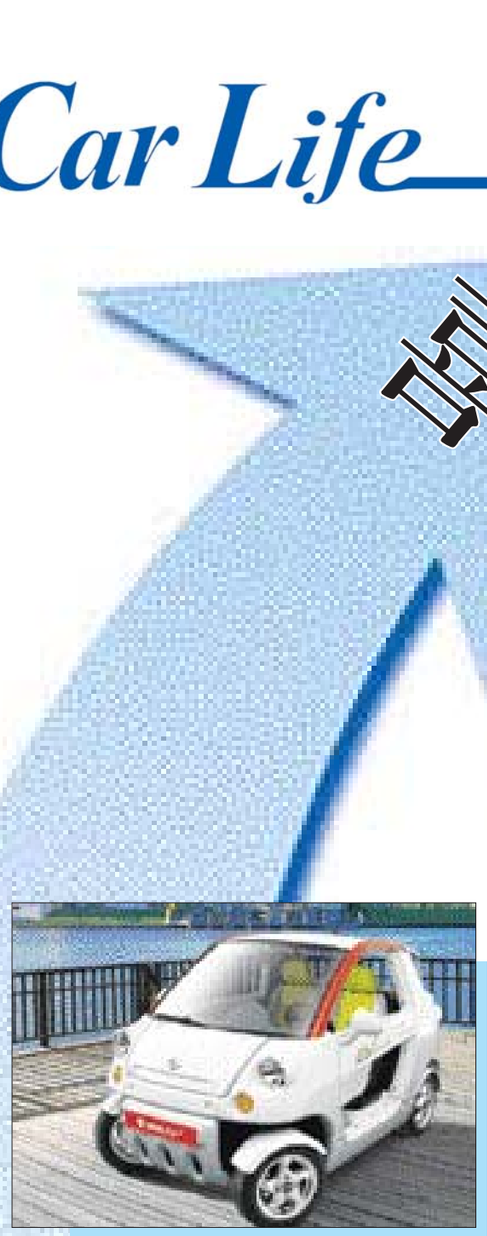
고유가 희비

LPG '뜨고' 경유차 '지고'

고유가시대를 맞아 연료절감기가 큰 인기를 얻는가 하면 월 유지비 1만원대의 전기차가 등장하는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기름값'으로 쏠리고 있다. 또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웃도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유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LPG차의 '몸값'은 크게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급변하고 있다.

월 유지비 1만원대 전기차 곧 출시
LPG 장착 카렌스 등 판매량 급증
SUV 차량 판매 4월比 18% 줄어
쌍용 렉스턴 생산라인 부분 휴업


〈전기차 e-zone〉

〈뉴 카렌스〉

〈뉴 다마스〉

◇연료절감기 때아닌 호황=기름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연료절감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공회전 자동정지시스템을 적용한 연료절감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차량 정차시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기름을 막아보겠다는 시도다.

차량이 멈춘 뒤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2초 후에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대당 가격은 60만원을 웃돌지만 장기적인 절감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료절감기를 장착할 경우 반드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료절감기의 인증서를 보고 국가기관이 인증한 제품인지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유지비 1만원대 전기차 등장=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저연비의 전기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전기차 전문업체인 씨티앤티(CT&T)에 따르면 근거리 이동용 전기차 'e-ZONE'이 조만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이 차는 CT&T가 4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차량이다. 유지비는 하루 40㎞ 운행 시 월 1만원 수준으로, 차량 가격은 1천200만원대로 예상된다. 가정용 220V로 4시간 정도 충전하면 최고 시속 50㎞로 70~100㎞ 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전기차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시판되더라도 도로에서 몰 수는 없다. 회사측은 우선 공장 업무용과 골프장, 공항, 대학 구내의 이동용 차량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차에 광고 부착하면 기름값 번다…이색 아이디어 속출=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각종 아이디어 사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벤트 전문업체인 티브이엠씨는 최근 차량에 홍보 및 이벤트 랩핑을 부착할 경우 30만~50만원의 차량운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경차 및 1,500cc 이하 소형차 운전자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 마케팅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7월2일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10년 전 가격으로 모십니다'라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방문 고객 중 추첨으로 매주 550여명씩 총 3천318명에게 1998년 휘발유 판매가인 ℓ당 1천118원에 주유할 수 있는 할인권(1회 30ℓ 한정)을 나눠준다. 경유도 10년 전 가격에 넣을 수 있다.

◇다시 부는 LPG '열풍'…차량 개조도 급증세='고유가'의 여파로 LPG차량이 다시 뜨고 있다.

기아차의 LPG차량인 '카렌스'는 지난 4월에만 2천334대가 판매돼 전달(1천552대)에 비해 50.4%(782대)나 늘었다. '카니발'도 4월 판매량이 1천871대에 달하면서 지난해 4월(1천63대)에 비해 76%(808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GM대우도 지난달 출시된 '다마스'와 '라보'가 판매 열흘 만에 826대나 팔려나가면서 LPG차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역 내 정비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휘발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 120만원 가량이 든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차는 폭발위험이 높고, 사고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유값 급등으로 SUV 등 판매 급감…일부 라인은 '스톱'=고유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4사에서 생산하는 차종 가운데 SUV의 판매 실적은 1만4천258대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8.2%나 줄었다.

이같은 SUV차량의 추락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라인의 가동을 줄일 만큼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0일 '렉스턴' 등 SUV를 생산하는 평택공장 조립 1라인의 한시적 부분 휴업을 단행했다. 경유값 급등으로 SUV 판매가 급감하자 부분 휴업을 통한 생산량 감축에 나선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뉴 카이런〉

〈윈스톰〉